

No war No war No war No war No war No war No war

전쟁과



여성

주 관 <여 학 생 위 원 회>

함께한 사람들 <평화인권포럼 & 반전위원회>

For women For women For women For women For women

목차

- 1 여학생위원회 성명서
- 2 공동선언문-여학생 위원회, 평화인권포럼, 반전위원회
- 3..5 이라크 소녀의 글 - '현실의 목소리로부터'
- 6..11 여위 입장글 - '전쟁 그곳에 여성은 없다.'
- 12..16 조순경 선생님의 글 -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 17..18 여위 추천 책 소개
- 19 rawa & waw 소개
- 20 강연회소개 - '조순경선생님' 강연회



요즘 평화를 향한 의지와 열망 속에 반전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지를 표하지만 한편 그들의 구호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말하고 싶다. 전쟁 광 부시와 미국의 오만에 대한 전 세계의 분노와 전쟁으로 인해 비대해질 폭력에 대한 염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말하게 하는 하나의 출발점일 수는 있되, 그것으로 평화에 대한 염원이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역사상 어떠한 전쟁도 근본적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적은 없었다. 인간이 살아온 삶의 터전,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폭력이 어떻게 한시적으로라도 정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전시에 저질러진 무수한 합법적 살인과 합법적 강간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아동 학대와 여성, 노약자에 대한 만행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인종 박해와 최첨단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해 태어난 전쟁 기형아, 전쟁의 기억으로 인해 망가진 술한 사람들의 삶이 은폐되고 잊혀져 갔음을 기억한다. 대량으로 폭력을 생산해내는 구조, 판성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어떠한 전쟁도 근본적으로 반대되어야 한다고, 명분 있는 전쟁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특정 국에 의해 수행되는 특정한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구조, 그 폭력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파괴되고 그 고통과 피해의 실체에 대해 말할 계기조차 주어지지 않는 무수한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야말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그렇기에 전쟁을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급진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주체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는 권력자들에 의해 일어난 전쟁에 의해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존재를 가장 크게 위협받는다. 전시에 강화되는 젠더화된 폭력의 구조는 군대 유지를 위해 강간이나 성매매를 보다 강하게 보호한다. 그들의 인권은 전쟁 속에 소리 없이 묻혀 망각되었고 그들은 전쟁의 폭력적 구조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 당해왔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들이 전쟁 속에서 당해온 경험이 살인 병기로 동원되는 남성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경험의 차이는 이제 제대로 말해져야 하며, 그들의 침묵은 우리에게 의해 강력하게 언어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 속의 여성과 아동,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도식적으로 인용하기를 멈춰야 한다. 정신대 할머니들, 전쟁 생존자로서의 여성의 증언을 소환해내어 우리의 반전 구호가 그들이 당한 고통의 무게만큼 강력해야 함을 확인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폭력의 중앙에서 가장 고통 받는 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가장 평화를 염원하는 주체로서 중앙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전쟁, 그들의 낮은 목소리를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모든 폭력의 실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어떠한 정권에 의해서도 명분으로서 이용당하기를 거부했던 혁명적 주체로서의 여성들, RAWA와 WAW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말하는 중심에 우뚝 세워야 할 가장 전쟁에서 자유로운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peace for women



3월 20일 오후 12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폭격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지난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또다시 부시 행정부의 명목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인간은 이익, 안보,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이라는 극도의 폭력적인 방법을 취해왔다. 그러나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전쟁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규모 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특히 오늘날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참혹한 경험만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일직선상에 있는 군사주의적 문화는 사회 내에서도 폭력을 일상화 하며, 온갖 반인권적 행태들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전쟁은 생태적으로도 극악무도한 행위이다. 전쟁에 동원되는 온갖 대규모 살상무기와 생화학무기는 수많은 사람과 자연을 초토화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회복불능의 상태 속에 던져놓는다.

또한 전쟁은 지배집단이 여성과 소수자들에 대해 가하는 억압과 폭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된다. 전쟁은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똑같이 경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전쟁에서 난민의 80% 이상은 여성과 어린이였다. 역사상 수많은 전쟁은 여성을 전쟁의 약탈물로 만들어왔으며, 전시에 여성에게 행해지는 강간, 구타, 학대는 전쟁이 성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모든 전쟁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전쟁이다. 전쟁 시 일어나는 폭력은 일상의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하나의 전쟁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적 삶의 가치들을 파괴시키며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더욱더 희생시킨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전쟁에 전면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배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여학생위원회

□ 평화인권포럼

□ 반전위원회

현실의 목소리로부터...

원제: What about Iraqi Children?

커닝햄 중학교에 다니는 이라크 출신 13세 소녀 Charlotte Aldebron 의 글입니다.

사람들은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군복을 입은 사람 후세인의 얼굴이나, 총을 들고 있는 검은 콧수염을 기른 군인들이나, 알라시드 호텔 바닥에 '범피자'라는 글씨와 함께 새겨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걸 아세요? 이라크에 살고 있는 2천4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라는 걸.

이라크에는 1천200만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아이들요. 저는 열세 살이니까, 어떤 아이들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어릴 수도 있고, 남자 아이일 수도 있고, 저처럼 붉은 머리가 아니라 갈색 머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바로 저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의 아이들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전쟁과 오랫동안, 여러분이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머리 속에는 바로 저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이려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

제가 묻어 준다면, 1991년 2월 16일 바그다드의 공습 대피소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이 떨어뜨린 '스마트' 폭탄에 잘려당한 300 명의 아이들처럼 그 공포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날 공습으로 엄청난 불길이 치솟았고, 배를 끌어 있던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질척도 없이 타버렸 습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텔레비에 붙어 있는 전쟁만 잘 조각을 때어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묻어 준다면, 바로 이 순간 바그다드의 어린이 병원의 '죽음의 병실'에 있는 열 네 살의 딸이 죽어 완전히 죽어 버립니다. 알리는 이 병원에서 사육되는 우리 나라 늑대 때문에 악성 폐렴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18개월 된 무스타파처럼 '모래파리'라는 기생충이 장기를 갉아 먹는 병에 걸려서 손을 씻을 수도 없이, 그저 고통스럽게 죽어갈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무스타파는 단돈 25달러밖에 안되는 약만 있으면 완전히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라크에 취한 경제봉쇄 때문에 이라크에는 약이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죽는 대신, 살만 모하메드처럼 걸으로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외상을 안고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살만은 1991년 여러분이 이라크를 폭격했을 때 여동생과 함께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아직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만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한 방에서 함께 자게 했습니다. 모두 다 살든가, 아니면 같이 죽고 싶어서. 살만은 아직도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악몽 속에



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걸프전이 벌어졌던 세 살 때 여러분의 손에 아버지를 잃은 알리처럼, 고아가 될 겁니다. 알리는 3년 동안 매일같이 아버지 무덤에 덮힌 먼지를 쓸어내리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세요. 아빠를 여기에 가둔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요.” 라고. 하지만 알리는 틀렸어요.

아버지를 가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니면 전 걸프전이 벌어져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늦게까지 밤을 셀 수 있었다고 좋아했던 루아이 마예드처럼, 아무일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루아이는 지금 학교에 갈 수 없어서 길에서 신문을 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조카나 이웃집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사지가 절단되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아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도 없고 편안하게 해줄 수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기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무너진 건물의 율리미에 깔려서 울부짖고 있는데,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자가 눈앞에서 여러분이 죽는 걸 보고 나서, 굶주린 채로 혼자서 이 거리 저 거리를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액션 영화도 아니고, 공상 영화도 아니고, 비디오 게임도 아닙니다. 바로 이라크의 아이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최근에 한 국제 조사단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금,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조사단이 만나 본 아이들 중 절반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쟁이 뭔지 알고 있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섯 살짜리 아셈에게 전쟁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셈은 전쟁이 “총과 폭탄에 날려진 루아이가 되고, 우리가 불에 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 살 때 이라크에서 돌아온 대령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의 수많은 아이들이 전쟁에서 죽는 걸 보게 되면 후회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다른 아이들과 문제가 생기면 때리거나 욕을 하지 말고,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한 행동 때문에 자신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 기분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던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에 사는 모든 아이들처럼, '우리'는 지금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 속수무책으

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그 모든 결과 때문에 고통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두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미래를 훔치려 할 때 화가 납니다. 우리는 내일도 엄마와 아빠가 살아 있기만을 바랄 때 슬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모른다. 이 아이들이 느끼는 현실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함부로 이 아이들을 이야기하며 전쟁을 반대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러나 들어야한다. 후세인, 부시, 최첨단 무기들 이야기가 아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 그리고 말해야한다. 누가 반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한 반전을 말해야하는가. 이들은 그냥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그들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음에, 힘 없는 피해자의 범주로 그냥 묶여버림에 화내고 분노하는 반전의 가장 앞자리에 서야할 존재이다.

- wirini -



1. 우리가 보고 있는 매체 속 전쟁과의 거리, 거기서 숨겨진 것들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 한 편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전쟁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우 주가지수로부터 세계 곳곳에서 들끓고 있는 반전 시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전쟁에 대한 소식은 온갖 매체에 포화상태이리만치 흘러 넘치고 있다. 그러나 신문과 TV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이라크 전쟁의 모습은 한없이 가까우면서도 한없이 낯설다. 이번 전쟁에서 동원될 최첨단 미사일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3D 그래픽을 동원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시작된 방송국의 보도는 이 전쟁이 이라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켜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보다 이 전쟁에 대해 모형 전투기를 조종하는 듯한 심리적 거리감을 조성한다.

전쟁은 시시각각 TV 화면을 통해 진행되지만, 우리는 전쟁에 대해 머리 속의 그림과 무수한 정보만 전송받고 있다. 화면 저편의 일로 이국의 전쟁을 안전하게 지켜보고 있는 동안 전쟁은 끝날 것이다. 2년 전 아프간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10여년 전 걸프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안전함은 특별히 위협받지 않는다. 반전을 외치며 온 세계 거리에 흘러넘치는 인파조차 이라크인들의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힌 눈동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실감하지 못한다. 끔찍하게 폭격당한 삶의 터전, 전쟁 기형아와 난민, 전후복구를 위한 장기간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한편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쟁의 중앙에 서 있는 현실의 그들에게 우리가 두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거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정확히는, 그 '거리' 속에 감춰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2. 폭력의 경험, 그 차이가 말해야 한다면 바로 이제부터

전쟁과 장기간의 경제 제재와 장기 독재로 인해 피폐해진 이라크 사람들... 그 중에서도 결국 바그다드에 남겨질 대다수의 이라크 여성과 아동과 노약자와 장애인들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화면 속 그들 모습에 정확히 겹쳐지는 것은 2년 전 아프간 전쟁 때 내가 보았던 슬한 난민들이다. 국경 부근에서 원조만을 기다리고 있던 무기력한 모습의 여성과 아동과 노약자, 허기지고 초췌한 모습들, 이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은 정말 똑같아 보였다. 반전 구호나 연설에서 흔히 희생자나 피해자로 묘사되곤 하는 여성과 아동들, 노약자, 장애인들, 전쟁 한 복판에서 배제되는 이들은 매스컴에 의해 늘 비슷비슷하게 묘사된다. 카메라가 지나가며 비춰지는 순간 동안 화면 안에 잡히는 황폐한 얼굴과 남루한 행색, 그들의 고통의 깊이가 이쪽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전에 기자의 코멘트가 재빨리 덧붙여지며 그들은 잊혀진다.

그들은 언제나 전쟁의 외곽에서 존재해왔다. 전쟁의 포화를 피하려고 인간임을 쓰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의 철저한 파괴는 필연적으로 진행되고 그들은 피할 수 없이 축출되고

그들은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 폭력을 경험한다. 그 엄청난 강도와 깊이의 폭력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전쟁의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존재였다. 파괴된 삶의 터전을 복구할 힘조차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존재들, 끝이 보이지 않는 난민 행렬을 이루는 그들은 대개 여성이었고 노약자였고, 아동이었다. 그들의 수없이 부상당했지만 전투에서 입은 것이 아닌 그들의 부상은 전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슬한 폭격과 살상의 부수적 산물로 치부되었다. 대량 살상 무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사회에 의해 전쟁 기형아는 암암리에 태어났다. 그들의 존재는 비밀에 부쳐졌고 잊혀졌으며, 슬한 전시 강간과 전시 매춘의 합법화 속에서 여성과 아동의 잔혹한 학대와 착취가 자행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민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비워질 뿐이었다. 희생자와 피해자로 그들을 부르길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켜야 할 대상이기에 반전 구호에는 어김없이 그들을 보호하자는 말이 따라 붙었다.

또한 이들이 전쟁에서 체험하는 현실은 분명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을 생산하는 중앙에 서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늘 그들은 주변으로 밀려나야 했다. 그들의 주변성은 일상의 주변성과 연속선상에 있었지만 전시에에는 더 강화되어 나타났다. 그들의 침묵은 관례적으로 강요되었다. 그들의 폭력의 증언은 누군가에 의해 말해지지 않는 한 쉽게 잊혀졌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폭력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은 현실 어디에도 화면 어디에도 없었다. 소수자의 침묵은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 은폐된 것의 결과물이며, 그 은폐의 기제는 전시에 더 강화되었다. 그들이 말한 것을 전쟁의 한 가운데에 놓는 사람은 없었으며 슬한 사람들의 슬한 피해는 일일이 거명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피해자로 뭉뚱그려졌고 그들의 희생은 추상화되었다. 그들의 말은 기억되지 않았다.

전쟁이 이렇게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폭력을 양산해내고 민간 시민들에게 피해와 희생을 무작위로 요구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전쟁의 폭력은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된다. 전쟁 속의 폭력의 경험이 주체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는 일은 사실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직관으로도 그 차이의 의미를 알고 있다. 반전평화를 외치는 자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골이 있는 것을 알고 있듯, 우리는 안다. 전쟁이라는 게임에서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을 잃는지를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전쟁이라는 게임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잃는가가 정작 숨겨진 진실이며, 잃는 정도가 각자마다 다른 게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차이를 은폐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전쟁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각각의 주체의 경험의 차이를 선불리 획일화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처럼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조차 위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폭력 경험자들을 추상적으로 희생자화시키는 어법이야말로 단일한 희생자화의 덫 속에 갇히는 것이다. 각자 다른 주체가 폭력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를 간과한 채 획일적으로 그들을 피해자나 희생자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추상적 차원에서만 유효하다. 반전 평화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전쟁에 의해 가장 고통받는 자로 일컫는 동안에도 전쟁의 폭력 속에서 그들은 주변적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모순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3. 전쟁, 폭력의 물로 이뤄진 개입이 어떻게 일상의 질서를 재편성하는가

모두가 알다시피, 전쟁은 우리의 일상적 질서를 급격하게 재편한다. 우리가 근거하던 규범과 가치 체계, 의사소통의 장과 세계의 양상은 전쟁을 기점으로 급격하고 격렬하게 재구조화된다. 그 변동의 폭은 어떠한 것보다 깊고 광범위하지만 한편 전쟁과 같은 사건도 결국 우리의 일상적 삶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다. 모든 변화는 현실의 질서가 가지는 일정한 방향성에 근거하여 도출된다. 전쟁이라는 변화도 큰 맥락에서는 그러하다. 일상적 삶 속에 내재한 특정 질서나 구조는 전쟁을 기점으로 더 확연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전쟁은 그러므로, 일상적 질서에 잠복해 있던 어떠한 요소를 강화하는 측면과 어떠한 요소를 약화시키는 면으로 구성된다.

전쟁이 일상 세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많은 구조와 법칙을 파괴시키는 한편 강화시키는 구조와 질서들이 있음을 전제할 때 우리가 이야기 할 초점은 후자에 맞춰진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체 내의 정상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場과 그 장을 구성하는 다양성, 그 장을 구성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물, 소수보호의 원리는 전쟁 중에 크게 위협받는다. 공동체의 해체모니를 잡는 집단에 의해 공동체 내 사회 불안 요소로 지목되는 자(소수 세력)들에 대해 통제와 억압의 정도가 강해진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마이너의 입지를 가진 소수 세력이 전시의 힘을 공급받아야 할 공동체 내부의 결속과 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그것은 자연스러운 민주적 체제 속에서 항상 통합 속에 내포된 긴장과 분열 요소의 하나일 뿐이고 그들의 입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던 경우조차도), 그들이 받는 제재와 비난의 수위는 때로 지나치게 올라간다. 그들은 심지어 입지가 완전히 제거될 위험에조차 노출된다.(성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나 인종청소가 전시에 강화된다는 것처럼) 그리고 전시에 극우 보수 세력의 입김이 거세진다는 사실, 전쟁 유지의 이익을 가지는 군산 복합체나 관료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지배계급을 점하는 자들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강화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그러는 동안 제도적으로 보장된 민주적 소수 보호의 원칙 및 소통의 합법적 틀거리와 틀이 파괴되면서 체제 고착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이며 폭력의 일상화, 합법화, 관성화라는 비이성적 물이 그 빈 틈을 메우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은 젠더화된 구조와 계급화된 구조의 강화라는 양상을 띤다. 전쟁은 명백히 계급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전쟁 시에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현할 부와 권력을 점하고 있는 지배 계급이다.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수도 바그다드에 남아서 폭격과 집전이 예상되는 미래를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노약자, 아동, 여성이었고,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역사상 모든 전쟁의 궁극적인 피해자들은 서민들이었다.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증명되었듯, 전쟁은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상인에게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이기도 하지만 이에 무관하게 포화의 한 가운데 맨 몸으로 서 있어야 하는 이들,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는 다만 이유 없는 고통의 전원이었다.

4. 전쟁의 젠더화된 구조에 관하여 말하기- 누가 최대의 피해자인가

전쟁에 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진실은 전쟁은 본질적으로 젠더화된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여성에 대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 전쟁, 그곳에는 여성이 없으며 전쟁 속에서 여성은 심각하게 주변화된다. 여성이 어떻게 전쟁의 본질적 폭력을 깊숙이 경험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성은 전쟁의 폭력 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외곽으로 몰아 내쳐진다. 그들의 고통은 늘 축소 은폐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폭력을 생산해내는 전쟁의 구조에서 이 모든 폭력을 몸으로 받아내는 최말단 위치에 놓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폭력은 다시 누군가를 향하지 않는다. 누군가로 향해서 거듭 재생산되는 전쟁 폭력은 결국 그녀들에게로 향해서, 그녀들에게서 최종적으로 끝난다. 그들은 전쟁에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의 운명과 동일한 운명을 체험한다. 전쟁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로서의 여성은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들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의 은유다. 그들의 주변성은 여성이 전쟁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깊고, 강력하다. 모든 사회적 약자들은 여성들처럼, 전쟁의 궁극적인 총알받이가 되는 운명이다.

군인들도 국가와 군대라는 거대 시스템의 총알받이로 이용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정치 경제적 해체모니를 장악한 지배 계급에 의해서 살인병기로 동원되는 것은 애초부터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다. 폭력을 재생산해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강제되는 동안 그들은 분명 사회적 약자의 하나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군대라는 폭력적 시스템 속의 일부가 된 남성들은 여성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그 폭력을 아주 '당연한 듯' 행사하게 된다. 전시에 집단 강간이 그토록 일상화되었으며 전시 성매매가 방치되고 장려되기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가 2차에 걸친 세계 대전과 그 밖의 술탄 전쟁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여성이라는 대상을 향해 당연하게 자행된 남성의 폭력이었다. 베트남 전에 참전해야 했던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민간인 여성들에 대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면죄부를 쉽게 쥐어주는 안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일 수 있었던 그들은 이러한 역사적 만행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입지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의지가 아닌 폭력의 싸이를 속에 자발적으로 간헐으로써 폭력에 길들여지고, 누군가에게 자신이 받은 폭력을 똑같은 방식으로 재생산해냈다.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해방의 공간일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자유와 저항권을 버리고 폭력적 구조 속에 안전하게 편입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젠더화된 전쟁, 일상 속의 권력적 젠더 관계의 폭력성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5. 전쟁 속의 성폭력과 성매매, 상징화된 전역적 카타그리의 강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행해졌던 학살과 만행 속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충분히 증언되었다. 전시에 강간은 성애화된 행위로서가 아니라 권력적 젠더 관계를 실현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극화되면서 강간은 점점 더 일상화되고 합법화된다. 전시에 자행되는 무수한 강간은 극단적으로 황폐화된 군인들 개개인에게 비상 탈출구로 형성되는 특수한 전쟁(남성) 문화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용인되었다. 그들은 살인과 강간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 문화 속으로 용해된다. 강간은 남성성과 정복의 표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쟁 시에 권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약자를 향해 행해진

다.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 받아야하는 상황은 결국 약자에 대한 살상과 같은 폭력이 당연히 여겨지는 문화를 강요한다. 강간은 여성에 대한 인격의 말살을 수행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으로 여기서 동원된다. 그것은 더 이상 금지 규범 안에 포섭되는 '강간'이 아니다. 그것은 군대 내의 합법적 포로 관리 체계 이면에 존재하는 공격적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한편 전시 성매매와 군대라는 시스템의 끔찍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 베트남전이 왕왕 인용되곤 한다. 베트남 전이 진행되는 동안 광범위하게 형성된 군대 주변의 공창 지역, 그곳에서 팔려나가는 노란 얼굴의 여인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제 3세계의 총체적 비극의 상징이었을까. 베트남전의 극악한 폭력의 현장을 반증하는 산 제물이었을까. 그 많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존재는 한편 어떠한가. 전시 성매매가 사실은 성 노예제를 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한국의 기지촌은 또 어떠한가. 캐서린 H. 문에 의해 '동맹 속의 섹스'라고 이름 붙여진 기지촌, 전후 경제 부양자로 외화 산업의 성매매를 장려받아야 하던 그 당시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전시 성매매는 젠더화된 전쟁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현상이다. 일상의 성매매는 전쟁시에 더 극적으로 부각된다. 성매매에 관한 일상의 이중성은 더 극화된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합법화된 것이며 남성 문화 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다. 다만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존재가 은폐되고 평가 절하될 뿐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음흉한 공모를 보라. 그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남성들의 성매매의 수요와 그것이 행해지는 거대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다. 성매매 금지 규범 무력화, 성매매에 대한 그들 남성의 이중적 태도야말로 전시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전시 포로 대우에 관한 국제 조약이 엄연히 전시 강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을 강간하고 학살하라고 호기롭게 종용하는 군대 문화가 저질러온 집단적 폭력의 경험에 대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전쟁이 젠더화된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전시 성매매와 전시 성폭력의 강화를 들었지만, 좀 더 상징적 차원으로 넘어가자면 전쟁이 발발하면 남성 여성의 구별이 더욱 확연해질 뿐 아니라 남성성 카테고리도 중요시되고 여성성 카테고리가 주변화된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¹⁾ 전쟁 영웅들의 상상 속에 정복되어야 할 땅이 여성 몸으로 표현된다든지, 1차 걸프 전 당시 조지 부시와 사담 후세인이 스스로를 남성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를 여성적으로 표현하는 예, 9.11 테러 이후 미국 인터넷에 떠돌던 빈 라덴의 회화화 그림 중에 비키니를 입혀놓거나 여자라고 부르는 그림 등이 있었던 점²⁾에서 알 수 있듯 여성성을 비하하는 상징 체계가 전쟁 중에는 전면에서 강화된다. 또한 전쟁 중에 여성 정치가의 대권 도전이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수위가 높아졌던 예³⁾라든가 남성 수상 슈뢰더의 감정적 동요에 대해서는 추켜세웠던 미디어들이 녹색당 여성 당수 클라우디아 로트가 아프간 피난민의 비참한 상황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구호물자 수송을 위해 전쟁 종단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여성정치가로서의 그녀의 판단력을 절하하는 비난이 빗발치는 불균형한 태도를 취한 것 같은 예도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⁴⁾

1) Ruth Seifert의 주장

2) 《여성과 사회》 중에서 「독일 언론을 통해 본 아프간 여성과 전쟁」 박희경

3) 위와 같은 글 40페이지 중에서 인용

6. 일상과 연속선 상에 있는 폭력으로서의 전쟁, 거기서 탈출하기

일상과 연속선 상에 있는 폭력이 전쟁에 의해서 단지 강화된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 젠더화된 구조가 피해와 폭력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점 또한 전쟁을 통해 역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젠더화된 구조들이 전쟁 속에서 강화되어 작용하는 모습이 얼마만큼 큰 폭력을 양산하는지 역사 속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목격하였다.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구조적이며 관성적으로 행해지는가. 폭력은 얼마만큼 극적으로 확대되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전쟁은 언제나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해졌다. 여성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함의하는 기호이다. 전쟁이란 게임에서 가장 잃는 것이 많은 자는 바로 이들이다. 모든 폭력을 생산해내는 권력적 위계 구조의 최하위에서 신음하는 모든 주체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제 제대로 말해져야 한다. 그들의 고통과 분노가 해방의 공간으로 이행하기까지, 그들이 전쟁에서 경험한 폭력의 차이는 낱말이 밝혀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 눈에 비친 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하며, 폭력의 사이클에서 모두 함께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11대 여위 · 세류

4) 같은 글 중에서 인용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peace for women



'정당한 전쟁'이란 없다

9.11 테러 이후, 부시의 증오와 복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을 불안해했다. 부시의 그 끝을 모르는 오만함에 분노했고,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의 아둔함에 기막혀 했고, 아프간 여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가슴 가득한 슬픔을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더 이상 파괴될 것조차 남아있지 않은 아프간에 대한 강대국들의 보복 전쟁 위협에 몸을 떨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러한 일들을 영화관의 관객처럼 앉아 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우리들의 무력함에 또 한번 절망했다. 무엇이든 하기 위해, 무슨 소리라도 내기 위해 한 명, 한 명의 여성들이 모여들었고, 성명서를 내고, 퍼포먼스를 하고 전쟁과 폭력을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연대하라'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사람들은 이러한 미국 보복 전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이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얘기했다.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주도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프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규모 공습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이미 더 이상 파괴될 것조차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버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왜 이 전쟁을 반대하는가? 만약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주도했고, 그가 아프간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만약 아프간이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가난하고 아프간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에 지쳐있지 않다면? 만약 미국이 '정당한' 이유로 일본을 공격했다면? 만약 이 전쟁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아프간이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전쟁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더할 나위없는 약소국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평화를 위한 전쟁'이란 없다. '명분있는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전쟁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전쟁에서 여성들에게 아군과 적군은 구분되지 않는다. 미국의 공습으로 나선 피난길에 아프간 반군과 정부군에게 수 차례의 윤간을 당한 15세의 아프간 여자아이에게 자신을 '보호'해 주는 국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전쟁은 (남성) 군인들에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폭력의 대상은 여성, 장애인, 어린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다. 전쟁의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발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나의 전략으로 전쟁은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무기로 삼는다. 여성에 대한 강간은 주민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혹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세르비아의 집단 강간 캠프가 그것이며,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동원이 그것이며, 그리고 바로 지금 아프간의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이 바로 그것이다.

여성들에게 '정당한 전쟁'이란 없다. 모든 전쟁은 여성에 대해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포기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은 항상 사회적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증오와 폭력에 기반한 전쟁은 그 증오와 폭력의 대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기서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유색인종, 성적 소수자들은 그 위기의 제물로 희생당해 왔다. 이들에 대한 사회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 기반한 태도와 행동들은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적나라하게, 공공연히 자행된다. 이들은 때로는 위기가 초래된 원인 제공자로, 때로는 위기의 결과 나타난 모든 사회 악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목숨 걸고 싸우는' 남성들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그려진다.

전쟁의 사생아, 차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무려 1,000여명이 테러 용의자로 체포되었거나 구금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기를 빌미로 얼마나 쉽게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이들 감금된 '테러 용의자들'의 손과 발은 족쇄로 채워져 있으며, 하루 두 번의 온몸 수색은 물론이고, 이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먹지 않는 음식들을 주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고문까지 합법화 하고자 한다.

인간에 대한 차별은 강한 전염성을 지닌다. 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길을 마련해 준다.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외국인 혐오증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떨어뜨린다. 유색인종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 차별에 대해 무감각하게 한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이같은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전 세계는 잠재적인 전쟁 상태에 있지 않은가.

'얼굴 없는 전쟁'이라 칭해지는 미국의 보복전쟁은 이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미 전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며,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얼굴없는 테러는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고, 누구든지 테러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하철 독가스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테러 혐의자로 지목된 적군과가 서울에 온다면? 미국식으로 한다면, 일본은 서울을 공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습은 '악과 악의 성전'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미국식의 '테러와의 전쟁'은 전세계를 전쟁 준비 상황에 들어가게 한다.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은, 특히 강제적 징병제에 기반한 전쟁 준비 사회는 '정상적' 신체와 정신을 가진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자로, 여성과 장애인, 어린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받는 자로 그려왔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가부장적 남성성을 강화하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특권을 부여해 왔다.

모든 전쟁은 국가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인간에 대한 대량 살인과 강간, 모든 종류의 폭력을 정당화해준다. 비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주의는 쉽게 가족주의로 전환된다. 가부장적 가족의 정점에 있는 남성들의, 그리고 그러한 남성들을 대변하는 국가와 조직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행동은 가족의 이름으로, 또는 가족의 유지라는 명분으로 행해진다. 여성에 대한 부당 집단 해고, 성매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아동에 대한 학대, 이 모든 것들은 '건전한 가족' 질서의 유지라는 명분아래, 면죄부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군사주의의 산물이다.

미국식의 보복 전쟁이 허용될 때,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는 '전쟁을 준비하는 사회'가 된다. 군비의 증강은 당연히 사회복지의 축소를 가져오고, 복지의 주 수혜자인 여성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전쟁에 대해 말할 권리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들이 전쟁의 일차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전쟁에 대해 말할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남성에 의해 수행되고 남성에 의해 규정되는 전쟁에서 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전쟁의 경험은 남성들의 경험으로, 남성들의 언어로 얘기되어 졌다. 여성들이 전쟁에 대해,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에 대해, 그 군인을 징집하는 제도에 대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여성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무지할 것을 강요당해왔다. 여성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발언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군대와 군사주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여성들은, "너희가 무엇을 아느냐", "너희가 우리의 희생을 아느냐"는 위압에 가득찬 소리를 들어야 했다.

여성들은 전쟁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의 선 바깥에 있어야 했다. 한 가지 여성의 역할, 알아야 할 지식이 있긴 있다. 군에 보낸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로, 군에 간 애인을 기다리는 여성으로, 이들이 해야 할 역할과 마음가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했다. 여성과 전쟁에 대한 말들은 이 선에서 멈추어 있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군사주의와 여성의 인권,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정신대의 문제를 얘기하고, 세르비아의 여성 강간 캠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매개로 한 인종청소, 인종학살도 얘기해 왔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보복 전쟁을 보면서 여성들은 얘기하기 시작했다. 일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의 폭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우리들은 이 지점에 멈추어 서 있다. 여성들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을 반대' 한다는 것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나는 전쟁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거짓과 기만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다. 그를 위해 나와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그 경험에서 나온 생각들을, 그리고 사물을 보는 여성의 시선을 신뢰하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동안 남(자)들의 말을 들어왔고, 전쟁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상황을 판단해 왔다. 여성은 전쟁이니 국제관계니 하는 문제에 스스로 무지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들은 전쟁의 실체에 대해 그 어느 누구보다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전쟁의 어리석음과 폭력성, 그리고 그 허구성의 실체를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 일상적으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험에서 나온다.

미국에서 보복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백인 중산층 남성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프간의 민주주의와 아프간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어느 집단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보복전쟁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아프간 여성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전쟁도 아니며, 아프간의 민주화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아프간의 여성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끊임없이 폭력의 기만성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프간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온몸을 뒤덮는 부르카로 인해 피부염과 천식으로 고통받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를 당하고, 웅덩이에 빠지는 아프간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구걸과 매춘으로 길거리를 떠돌고, 그 거리에서 운간을 당하는 아프간 여성들의 이야기를, 미국의 폭격으로 10명중 7명이 파괴된 건물에서 이 겨울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야 하는 아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국의 폭격으로 카불의 아이들 10명중 9명이 자신은 전쟁으로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차마 보고 싶지 않은, 차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들의 이야기를, 밤새워 눈물 흘리며 씨내려 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미국의 보복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미국의 지속되는 공격과, 늘어만 가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탈레반 정권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는 행위일 뿐" 이라는, "피곤에 지치고, 상처받고, 비탄에 젖어, 버려진 우리 아프간 사람들이, 그 범죄자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아프간 여성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일이다.

미국의 보복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을 멈추어 달라"는, 더 이상의 절망의 상황을 생각할 수 없는 그들에게 폭격을 멈추어

달라는 울음섞인 호소를,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들의 전면적인 집단봉기에 의해 탈레반과 빈 라덴을 제거하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없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선거로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편이 되어 달라"는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일이다.

여성으로서 전쟁에 반대 한다는 것은,

아프간 여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이있음을 믿는 일이다.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고통과 억압을 가져온 미국도, 소련도 아님을 믿는 일이다.

여성으로서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쟁 준비 사회'에서 탈레반적 억압의 현실들을 드러내고, 격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 그로 인한 고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여성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그러한 고통을 가진 여성들이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 그러할 때만이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아프간 여성들의, 희망을 부르는 연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계간 if지 2001년 겨울호

조순경(WAW 회원, 이화여대 여성학과)

여의 추천 책 소개

peace for women



『내셔널리즘과 젠더』

우에노 치즈코 저/이선이 역
박종철 출판사 | 1999년 12

『내셔널리즘과 젠더』는 김학순 할머니 등 연이은 정신대 생존자들의 진술로 인해 당시 잊혀졌던 전쟁 범죄의 역사가 복원되었기 때문에 탄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시 군대 내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정신대, 위안부 등으로 칭해졌으나 이제 명칭을 바꿔서 부르고 싶다)의 용기 있는 증언과 고발이 '강한 편지처럼 자신의 폐부를 찔렀으며' 이 글은 '그들의 증언이 자신에게 던진 물음에 대해 있는 힘을 다한 응답'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일본 내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처럼 그녀 또한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가해국 국민으로서 뼈아픈 자기 성찰과 책임 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그녀는 페미니즘이라는 출발점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녀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나는 그녀의 책을 읽으면서,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절절히 감동하고 울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깨달았다. 개인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생존자들의 존재 자체가 제기하는 정치적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배앓긴 얼굴』

라티파 지음/ 최은희 옮김
이래 | 2002년 10월

탈레반에 짓밟힌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에 대한 생생한 기록

"이 책은 내 가족이 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에 겪은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 두고, 생생한 증언을 가슴과 기억에 묻어둔 다른 여성들에게 이 책이 그 닫힌 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켰던 모든 아프가니스탄 소녀들과 여인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1세기를 살면서도 자기 조국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어둠 속에 갇혀 사는 모든 여성들, 그녀들에게 바친다. 자녀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판결문도 없이 공개 처형된 모든 여성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 프롤로그 중에서

이슬람 독재로 악명이 높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기에 여성들이 겪은 삶을 생생하게 그린 수기 《배앓긴 얼굴》이 도서출판 이래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 국내에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고통스런 삶을 있는 그대로 낱말이 보여준다. 기자를 꿈꾸던 중산층 가정의 10대 소녀 라티파와 그의 가

죽, 친지, 이웃들이 1996년 탈레반 집권 이후 보고 겪은 일들은 나치 경험을 피해 숨어 살던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감당했던 일에 견줄 만하다. 라티파의 기록은 비단 탈레반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세상의 모든 인권 유린에 대한 고발이며, 밟을수록 더 힘차게 일어나는 인간 정신에 대한 찬양이다.

『전쟁에 반대한다 : 우리 시대에 고하는 하워드 진의 반전 메시지』

하워드 진 저/ 유강은 역
이후 | 2003년 02월



하워드 진의 이 책은 '전쟁', 특히 미국의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2차 세계대전부터 리비아, 베트남, 코소보와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이라크 전쟁까지, 지금까지 미국이 개입하고 일으킨 전쟁들을 성찰하면서 새 세기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글이 갖는 장점은, 무엇보다 그 자신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직접 겪었던 체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폭격수로 참전했던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할 때면 특히 그렇다(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와 프랑스 르와양 폭격에 대해 고발하는 글들을 보라). 또 다른 장점으로, 그는 어려운 논리와 추상적 개념에 기대는 대신, 구체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에서부터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 전쟁과 경제 제재의 참상』

노암 촘스키 등저/앤서니 아노브 편/이수현 역
북막스 2002년 | 10월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참혹한 현실을 폭로한 책이다. 미국은 이라크가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까지 지원해왔지만 그 이후 이라크를 계속 공격해 왔다. 이 책은 미국이 이라크를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걸프전 이후 경제 제재가 이라크에 미친 참혹한 영향, 전쟁에서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이 환경과 이라크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들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이라크의 경제 제재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 책은 2000년 출판되었다가 2002년 겨울에 개정·증보되어 다시 출판된 것을 번역했다.

WAW & RAWA 소개

peace for women

WAW(Women Against War)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2001년 9월 20일 평화를 원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을 통해 발족한 WAW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및 단체들의 모임이다. 'WAW'는 전쟁과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는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WAW'는 여성단체와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여성언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새로운 여성 연대체'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주변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WAW'는 현재 이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http://www.freechal.com/waw21>)를 통해 개인 회원들이 언론/번역/대학/사이트/학술/홍보 팀에 자원하여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개인 회원 및 연대 단체들이 함께 집회, 서명운동, 학술 토론회 및 사이트 운영을 통해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들의 전쟁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RAWA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아프간혁명여성연합>

"그들은 우리에게 생각할 자유도 주지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정신을 지켜낼 것이다." 정권의 폭제와 억압에 누구보다 용감하게 저항해 온 RAWA는 1977년 지식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조직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통제가 심한 아프간 사회에서 고문과 살인과 위협을 무릅쓰며 아프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사진 작업, 여성에 대한 의료지원과 교육, 난민들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해온 바 있다. (RAWA의 리더 미나 Meena 역시 1987년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정한 근거 없이 비밀스럽게 활동해온 이들은 인터넷과 같은 첨단 통신 수단을 이용해 세계에 아프간 여성들의 실상을 전파해오기도 하였다.

RAWA의 활동은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주로 파키스탄에 거주하면서 아프간을 들락거리며 자료를 수집해 왔지만 이제 아프간으로 가는 길목이 차단돼 더 이상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다.

미국의 보복전쟁전 RAWA 대변인 사이라 카렐은 "미국의 보복전쟁이 탈레반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미국 측의 질문에, "아프간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슬픔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며 '전쟁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말한 바 있다.

※ 아프간 여성 영상제- "전쟁, 폭력, 여성" 자료집에서 인용..

조순경 선생님 강연회

peace for women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행사는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한 강연회입니다. 요즘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반전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진정한 평화는 누구를 주체로 어떻게 이야기 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이러한 행사를 기획해 보았고 그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어보고자 합니다.

조순경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단체 WAW(women against war)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소수자의 이름으로의 반전이 고대 내에 담론화되기를 바라는 여위에 의도에 힘을 실어주시고자 선뜻 강연회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전쟁하든 약자로서의 여성과 아동이 이야기되긴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간 생각은 하기 힘들습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부족했던 고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성학이 따로 없는 고대에서 여성학 교수님의 강의 듣기 힘들죠. 이번 기회를 잡으세요.^^

강연회는 4월 9일 수요일 늦은 7시 서관 215 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강연회를 하는 주, 4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에 정대 후문 쪽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집을 함께 배부할 것이니 많이많이 들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특히 4월 9일에는 앞서 말한 WAW에서 사람이 와서 함께 해주실 것 같구요.

※이 행사는 여위의 주관 하에 학내의 평화인권포럼과 반전위원회가 함께합니다. 함께 나가는 공동선언문과 구호들도 눈여겨 봐주세요.

여위는 더 많이 나누고자 이 기획에 언제나 문을 열고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이로나 단체로나 함께 해주셔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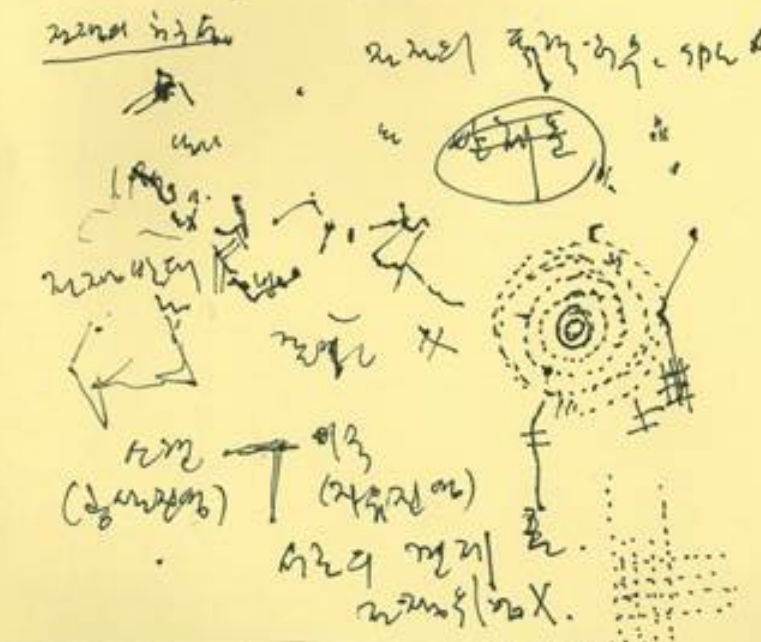
강연회때 보자구요~~☺

강연회 강연자를 피하라는 여성!

강연장이 본교가 강!

다음가다 강연장은 아픈 노예에게 라면 3가만 있나?

영국에게 가려지는 동양은 과당하하

우리의 국가는 이런 파병!!
C정기 강하...

이렇게 강연인가?

강연장